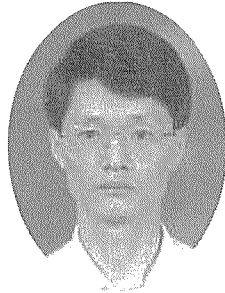


중국의 석유 정책 변화



이철규

〈 대한석유협회 석유개발팀 차장 〉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자금자족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으로부터 해외에서 석유 및 가스 공급원을 찾는 공격적인 정책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재원의 조성, 경비절감 및 청정연료 개발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석유·가스산업내 수많은 전략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외국의 석유를 필요로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000년도에 국내 석유수요의 30%에 달하는 약 366백만배럴(100만배럴/일)의 원유가 부족할 전망이다. 1999년도 원유수입량은 279백만배럴(76만배럴/일)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였다.

1999년도 중국의 석유제품 소비량은 1,063백만배럴로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유업체가 1999년 한해동안 사용한 원유량도 6.4% 증가한 1,229백만배럴이었다. 기간별 원유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은 99년 1월부터 9월 사이로 9.3%(이 기간동안 원유소비

량은 982백만배럴)에 달했다.

중국의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이 38조입방미터(1,340TCF)로 평가되고 있지만 생산량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5년동안, 중국의 총 에너지소비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였는데, 아시아 평균 8%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비록 향후 10년 동안 석탄이 중국의 에너지소비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겠지만, 중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역할이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의 석탄 매장량은 세계 총매장량의 11%에 해당하는 1,145억톤(5,336억BOE)으로 추정된다. 1998년에 석탄생산량은 1997년의 저탄량 증가로 인하여 97년 대비 5.5% 감소한 1,235백만톤이었다.

석유산업의 효율화

중국정부는 맹목적인 생산량증대를 추구하는 대신 에너지생산의 효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1999년초, 중국은 소규모 정유시설을 폐기하였고, 비효율적인 탄광들을 정리

하였으며, 한계유전들을 폐정하고, 에너지업계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인력을 감축하였다.

중국의 석유산업의 효율화는 중국경제 부흥에 있어 중추적인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 부문의 금년도 순이익 목표를 200억유안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금년에 모든 국영회사들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순이익의 60%를 차지하는 것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국제유가의 상승과 원유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들로 인해 금년도의 이러한 목표는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업계의 1999년도 3/4분기까지의 순이익은 189억 유안으로 1998년도 동기간의 순이익 46억유안에 비해 급증하였다. 이 순이익중에는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가 벌어들인 99.61억유안, Sinopec (China Petrochemical Corp.)의 50.43억유안과 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의 20.9억유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석유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더 많은 국제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국영석유회사들을 국제자산시장에 내놓고 있다.

국제자산시장에의 상장

국영회사들의 경영혁신과 고질적인 자본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CNPC, Sinopec과 CNOOC에게 금년중 국제자산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CNPC는 3월 이전 뉴욕과 홍콩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5,070억유안에 달하는 자산의 구조조정과 함께 소위 PetroChina Co. Ltd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사장은 현 CNPC사장인 Ma Fucui가 임명되었고 CEO로는 현 이사장겸 부사장인 Huang Yan이 임명되었다.

PetroChina의 인력은 50만명(CNPC의 총 인력은 154만명)이고 총 자산규모는 1,000억유안이다. 사업부문은 5개 분야로,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부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부문, 석유판매 및 파이프라인 운영부문, 외국합작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이다.

PetroChina는 중국 총 원유생산량의 68%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의 평균생산량은 약 320만배럴/일이다. 석유확보매장량은 원시매장량 기준으로 980억배럴에 달하며 중국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다. 정유능력은 210만배럴/일로 중국전체 정유능력의 42%를 차지한다. CNPC는 PetroChina의 주식상장으로 해외에서 80~9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Sinopec은 주식상장후 새로 설립할 지주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이로부터 500억유안의 조달을 목표하고 있다. Sinopec의 자산가치는 3,800억유안으로 평가되며, 1998년도 Sinopec의 순이익은 34.2억유안이었다.

CNOOC의 자산가치는 326.7억유안으로 평가되며, 지난해 순이익은 7억유안이었다. Sinopec과 CNOOC 역시 인력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Sinopec은 현재 120만명에서 80만명으로, CNOOC는 25,000명에서 23,5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외국투자자들은 중국 석유산업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주요 유전들이 생산절정기를 이미 지났으며 정유시설들도 낙후되었음을 지적하여 왔다. 육상에서의 원유생산량은 지난 3년동안 290만배럴/일로 정체되었으며, 육상유전에서의 평균 생산단가는 12달러/배럴로 세계 평균치 8달러/배럴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관심사는 정치적인 리스크이다. CNPC는 캐나다의 Talisman Energy Inc가 운영권자인 수단 Muglad 분지내 1, 2 및 4광구의 지분참여사로서 금년에 1,760만배럴의 원유를 배당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투자자들은 CNPC가 상장자산에 수단의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WTO 가입

중국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유망성을 증진시

키고 국영기업들을 보다 강인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12일 미국과 시장개방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WTO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아직 정부의 보호하에 있는 중국 석유회사들에게 힘든 시련이 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1998년 9월 이후 가솔린과 디젤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를 정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회사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관세가 인하되고, 내수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수입이 대량으로 증가되기 전에 내수시장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2년내지 3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업계에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외국회사들에게 3년마다 30개의 주유소 설립을 허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또한 WTO 가입 첫해에 145백만배럴의 해외 석유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5년동안 매년 18%씩 허용량을 증가시키거나 WTO 가입후 4년내에 석유수입쿼터 제도를 폐지하게 될 전망이다.

디젤과 가솔린 수입량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소비량의 단 12% 정도를 점유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했다. 수입쿼터의 대부분은 연료유의 수입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1999년 초부터 Sinopec과 CNPC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소매망을 강화시켜 왔다. Sinopec은 300개의 주유소를 건설하고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400~500개의 주유소를 매입하기 위하여 금년에 20억유안을 예산에 책정하였다. Sinopec은 중국 남부와 동부에서의 석유시장 점유율을 5년내에 10%에서 5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CNPC와 Sinopec의 순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1999년부터 소규모 정유시설들을 폐쇄하여 왔다. 중국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만배럴/일 이하의 원유정제시설들은 폐쇄될 전망이다. 중국의 220개 정유시설중 166개가 이 규모에 해당된다. 중국내 소규모 정유시설들의 총 정유능력은 60만배럴/일이지만, 1998년 원유정제량은 28만배럴/일에 불과하였다.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외국 석유가스회사들은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중국 육상 탐사 및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중국의 복잡한 지질과 상업적 개발계획에 대한 의무투자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내 순수 탐사사업 뿐만 아니라 회수증진사업에서 외국회사들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1993년이래 CNPC는 13개 분지내 총 40만Km²에 이르는 54개 탐사광구를 국제입찰하였다. Exxon, Agip, Texaco와 JNOC가 현재 타림분지내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공사례는 없었다. Exploration Co. Of Louisiana (XCOL)가 중국 육상유전에서 상업생산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며, Apache China Petroleum사가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1998년에 CNPC가 외국회사와 PSC계약을 체결한 것은 97년 11건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3건에 불과하였다.

정유부문에 대한 외국투자는 더욱 적는데, 아직 외국회사들이 민간 정유시설의 건설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중국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중인 외국합작정유시설은 TotalFina, CNPC와 Sinochem이 합작건설한 10만배럴/일 규모의 Dalian West Pacific Refining Co. Ltd. 공장뿐이다. 다른 외국석유회사들의 정유시설 투자 제의는 취소되거나 보류되었다. 사실, 중국은 약 200만배럴/일 정도 잉여정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유시설을 포함하여 중국은 520만배럴/일 규모의 정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평균 원유정제량은 320만배럴/일 정도이다.

그러나 석유화학과 천연가스 부문에서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 이 부문은 외국회사들이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중국정부로서도 향후 10년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분야이다.

해외 진출 전략

현재 수단, 페루, 캐나다, 태국, 베네주엘라, 쿠웨이트 및 카자흐스탄 등 해외 9개국에 투자 또는 기타 사업지분을 가지고 있는 CNPC는 국제적인 석유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난 6년 동안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를 공격적으로 확장하여 왔다. 지난해 아시아 경제위기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자 CNPC는 새로운 해외석유개발사업 진출을 보류하였으나 기존의 운영권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CNPC는 위험성이 높은 탐사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확인 매장량을 가진 유전을 매입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CNPC가 탐사시추에 실패하여도 무관할 만큼 자금이 여유가 있는 편이 못되고 국내 석유부족분을 충당할 만한 해외 석유공급원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CNPC가 해외 유전에서부터 확보한 석유생산량은 1998년 1,450만배럴이었으며, 2000년에는 7,330만배럴로, 그리고 2010년에는 3억7천만배럴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CNPC의 해외 유전들의 대부분은 자원보유국들이 한계 유전으로 간주한 것들이다. CNPC가 페루에서 취득했던 광구들과 같은 유전들은 중국의 기술적인 이점과 낮은 인건비 때문에 CNPC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페루의 노후화된 유전인 Talara 유전은 약 100년동안 생산을 해왔으며 생산량은 1950년대 고점을 통과하였다. 1994년 1월 CNPC가 인수할 당시 Talara 유전에는 약 1,800개의 휴지정 및 폐지정이 있었다. CNPC는 수백만달러를 투자하여 이들중 100개정을 재개발하였으나 단 586배럴/일 정도밖에 증산하지 못하였다.

CNPC는 1997년에 Ahadab 지역 유전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라크와 2건의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생산량이 30만배럴/일에 달하는 이 계약은 UN이 이라크에 가해진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효과를 보일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스피해 Shelf 서부에서 중국의 Xingiang 지역을 잇는 원유수송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CNPC의 관심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Uzen 및 Aktyubinsk 유전의 원유매장량이 파이

프라인을 건설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전들로부터의 생산량이 적어도 15만배럴/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천연가스 개발 정책

중국은 가스소비량을 현재 23BCM/년에서부터 2005년 50BCM/년, 2010년 80BCM/년으로 증가시킨다는 야심찬 가스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 기회가 증가될 것이며 파생산업도 이러한 계획으로부터 출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가스소비를 낙관하는 이유는 국내 에너지 공급부족과 환경적인 문제이다.

중국은 가스공급원으로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국내 자원, 아시아 또는 중동으로부터 LNG수입,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pipeline 가스 수입 등 3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가스를 들여오는 두가지 방법은 국내 개발자원의 부족분을 충당하게 될 것이다. 최초 LNG 수입은 2005년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와의 파이프라인 연결은 이보다 먼 장래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서부에서 동부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서부 천연가스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승인하였다. 이들 계획에 의하면 중국은 가스의 수송을 위하여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Sichuan성 Zhongxian 생산지역에서부터 Hubei성 Jinzhou까지 503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한다. 수송용량 3BCM/년, 건설비 20억유인에 달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수송루트 주변 10개 도시에 산업용 및 주택용 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1999년에 시작되었고 2000년 3/4분기중 완공될 예정이다. 2002년 이후에는 Zhongxian에서부터 중국 중앙부에 위치한 Henan까지, 그리고 상해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중국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E&P 뿐만 아니라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등 중국의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9년 11월초 중국은 도시가스파이프라인

건설부문에 대한 외국 투자금지를 철폐하였다.

석유·화학산업국가조정위원회(SAPCI)는 건설-운영-반납(build-operate-transfer)의 조건 아래 도시가스 건설사업에 외국회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도시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은 가스시장의 개방, 경쟁체제의 도입, 가스배정과 시장분할제도의 철폐, 그리고 효과적인 가격제도의 도입등을 위하여 법률적인 제도를 신설하여 줄 것을 중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내 천연가스가격은 외국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이지 못하다. 가스가격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0.46유안/m³에서 1.4유안/m³ 범위내에서 고정되어 있다. 중국 천연가스의 대부분이 비료생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농부들이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낮은 가격으로 비료공장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SAPCI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take-or-pay제도에 근간을 둔 새로운 가격제도를 준비중에 있으며 가스파이프라인 운영권자에게 그들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은 2005년부터 LNG를 수입하게 될 전망으로, Guangdong에 건설될 최초의 LNG 프로젝트도 곧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승인을 받은 이후, 중국은 LNG 터미널과 터미널에서부터 국가 파이프라인망까지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할 외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외국 LNG공급업체들에 대한 입찰도 뒤따를 예정이다. 최근까지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등 7개 나라가 중국에 LNG를 공급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50억유안 규모의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하여 CNOOC가 36%의 지분을 소유하고, Shenzhen 지방정부가 15%, 광둥전력국이 10%, Guangzhou Gas Corp.이 4%를 가지게 되며 외국 콘소시엄에게 35%가 배정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Shenzhen성 Dapeng만에 300만톤 규모의 LNG 인수터미널의 건설, Shenzhen과 Huizhou에 LNG를 사용하는 2기의 발전소의 건설, 3기의 기존 발전소의 개조보수, LNG터미널과 기존의 가스배

관망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 등이 포함된다.

초기 수입량 300만톤/년의 LNG중, 37%는 2기의 새로운 발전소에, 17%는 3기의 기존 발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며, 적어도 8%는 산업용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산업용 수요가 충당될 경우 그 나머지는 가정용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타림지역의 석유개발 전망

중국 동부에 위치한 대부분의 유전들은 이미 생산절정기에 도달하였고, 심지어 일부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타림분지는 지질학적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국 석유산업의 미래로 기대되고 있다.

타림분지에는 원시매장량 기준으로 약 800억배럴의 원유와 8.4TCM의 가스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CNPC가 이 지역에 투여한 노력에 비해 특기할 만한 성공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수년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타림분지의 탐사 개발을 통하여 2000년까지 73억배럴의 원시매장량과 16만배럴/일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8년까지 확보된 원시매장량은 2.4억배럴에 불과하였고 생산능력도 10만배럴/일 정도에 머물렀다. 더욱이 1998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2,800만배럴을 기록하였다.

1999년 9월말, China National Star Petroleum Corp. (CNSPC)는 타림분지 Tahe 유전에서 880백만 배럴의 원시매장량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CNSPC는 3년안에 확인매장량을 36억배럴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원유 생산량도 1998년 416만배럴에서 1999년에는 730만배럴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타림분지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에 싸인 지역중의 하나로 면적은 56만Km²에 달하며, 대부분 중립 내지는 세립의 지질학적으로 복잡한 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림분지는 아직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1,400Km²당 1공정도에 불과하여 궁극적인 포텐셜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CNPC는 1998년에 전년대비 31%와 90%가 증가된 5903 L-Km의 2-D와 635km²

의 3-D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10년동안 158,000 L-Km의 2-D와 7,600Km²의 3-D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여 28개의 석유가스 부존구조를 발견하였다. 1998년에 총 36개 탐사정을 시추하였으나 단 16개공에서 원유를 발견하여 목표량인 26억배럴에는 현저하게 미달되는 5.8억배럴의 원유확인매장량을 확보하였다.

결 언


중국은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신규사업의 진출을 보류하고 있으나, 지난 6년동안 CNPC를 통하여 해외석유개발사업에 공격적인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급자족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으로부터 해외에서 석유 및 가스의 공급원을 찾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고질적인 투자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고 선진기술력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내시장의 개방, CNPC, Sinopec 및 CNOOC 등 주요 국영석유사의 해외증시상장, 외국자본의 유치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안으로도 에너지 생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과감한 인력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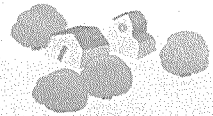
그러나 WTO의 가입, 국내 석유산업의 기반 허약과 외국자본들이 중국내에서 이렇다할 만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점등은 중국이 풀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9년 76만배럴/일의 원유를 수입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내석유수요의 30%에 달하는 100만배럴/일이 부족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하기 전부터 이를 대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석유정책이 성공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석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지만 수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 우리 정부도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지만, 200만배럴/일이 넘는 막

대한 양의 원유수요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의 석유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용어해설



• 데이터 스모그

데이터 스모그(Data smog)는 불필요한 정보들이 지나치게 많이 유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쓰레기 정보나 허위 정보들이 마치 대기오염의 주범인 스모그처럼 가상 공간을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미국의 데이비드 쉰크(David Shenk)가 1997년 출간한 책 제목에서 유래했다. 정보 부족에 시달리던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정보 과잉이 빚어내는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자신 앞에 던져지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산더미같이 쌓인 정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 이른바 정보피로증후군(information fatigue syndrome)이다. 지나친 정보량에 따른 스트레스가 소화불량, 고혈압, 불면증 등 신체적인 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과 정보의 바다를 지혜롭게 항해하는 기술은 정보 혁명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다.

• EV/EBITDA

EV/EBITDA : EV/EBITDA는 해당업체의 기업 가치(EV)와 실질 영업 순이익을 비교하는 투자지표다. 기업 가치를 실질 영업이익으로 나눠 계산되며 단위는 배이다. 분자에 들어가는 EV(Enterprise Value)는 시가총액에 순차입금을 더해 산출된다. 이 때 순차입금은 총 차입금에서 현금 및 투자증권 등 차감한 금액이다. 이 지표의 개념은 흔히 쓰이는 PER(주가/주당순이익)과 비슷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향후 상승 가능성이 크다.